

웃음의 교육학

레싱의 『민나 폰 바른헬름』과 브론테의
『위더링 하이츠』를 통해 본 웃음과 수치심의 긴장관계

이준서 (서울대)

1. 계몽과 웃음

당신의 웃음이 저를 죽입니다, 텔하임! 미덕과 섬리를 믿으신다면, 텔하임, 그렇다면 그렇게 웃지 마세요! 당신이 웃으시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저주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Ihr Lachen tötet mich, Tellheim! Wenn Sie an Tugend und Vorsicht glauben, Tellheim, so lachen Sie so nicht! Ich habe nie fürchterlicher fluchen hören, als Sie lachen.¹⁾

레싱의 희극 『민나 폰 바른헬름 Minna von Barnhelm』의 남자 주인공인 텔하임 소령은 자신의 선행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오자 세상을 증오했으며 자학적인 냉소를 퍼붓고, 자신을 달래던 여자친구 민나에게도 웃음을 강요한다(“당신은 심각하신가보죠, 아가씨? 왜 웃지 않으십니까? 하, 하, 하! 저는 웃고 있는 걸

1) Gotthold Ephraim Lessing: Minna von Barnhelm, oder das Soldatenglück (이하 M으로 표기). In: Wilfried Barner (Hg.): Gotthold Ephraim Lessing. Werke und Briefe, Bd. 6, Frankfurt/M. 1985, S. 83 f. (레싱(윤도중 역): 필로타스, 민나 폰 바른헬름,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1). 기존 번역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병기했으며, 인용할 때에는 그 번역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였다.

요”²⁾). 착하고 현명한 민나는 이 “인간 혐오의 끔직한 웃음 *das schreckliche Lachen des Menschenhasses*”(M, 83)을 참지 못한다. 그런데 텔하임이 그녀에게 왜 웃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데에는 민나 자신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녀가 “최고의 남성인 그에게서 약간 지나친 자존심을 발견하고는 그 때문에 그를 그토록 잔인하게 약올리려고”³⁾ 했으며, 텔하임이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웃으려 하시는군요, 아가씨. 제가 함께 웃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⁴⁾라며 비아냥거리자 다음과 같이 응수했기 때문이다.⁵⁾

왜지요? 웃음에 무슨 유감이 있으십니까? 웃는 가운데 아주 진지해질 수 없단 말씀인가요? 소령님, 웃음은 역정보다 우리를 더 이성적이게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당신의 웃고 있는 여자친구가 당신의 형편을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Warum nicht? Was haben Sie denn gegen das Lachen? Kann man denn auch nicht lachend sehr ernsthaft sein? Lieber Major, das Lachen erhält uns vernünftiger, als der Verdruß. Der Beweis liegt vor uns. Ihre lachende Freundin beurteilt Ihre Umstände weit richtiger, als Sie selbst. (M, 82)

민나의 말은 “최극은 웃음을 통해 개선을 하고자 한다. 하지

2) M, 83: “Sie sind ernsthaft, mein Fräulein? Warum lachen Sie nicht? Ha, ha, ha! Ich lache ja”.

3) M, 77: “Sie bemerk[t] an ihm, an ihm, [sic!] dem besten Manne, ein wenig Stolz, und darum [will sie] ihn so grausam necken”.

4) M, 82: “Sie wollen lachen, mein Fräulein. Ich beklage nur, daß ich nicht mit lachen kann”.

5) 정확히 말하자면, 이 부분에 웃음이 지문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민나가 실제로 웃는지는 연출자의 해석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텔하임이 민나의 태도에 곧장 ‘웃음’을 직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표상인지를 반증한다.

만 비웃음을 통해서는 아니다”⁶⁾라는 작가 레싱의 희극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몽적인 의도를 지니는 희극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깨뚫고 있기도 하다. 그 안에는 웃음이 대상과의 거리감을 확보해줌으로써 대상이 지닌 결점을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일단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믿음과 의도가 깔려 있다. 그리고 다시 그 근처에는, 잘못과 오류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발견자와 관찰자뿐 아니라 심지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참가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통관계에 대한 계몽적인 이해가 깔려있다.⁷⁾

그런데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민나의 ‘교육적’ 의도가 텔하임의 화를 돋구어 더욱 비이성적이게 만든다. 분명히 작가 레싱은 비이성적인 인물에 대한 ‘비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희극들을 배격하고 관객이 우스운 점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⁸⁾ 그리고 그의 여주인공 민나 역시 텔하임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쫓겨나고 명예를 손상 당한 장교, 불구자, 거지’⁹⁾라고 자조하는 데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 좁은’ 퇴역 소령은 그녀에게 조소를 퍼부음으로써 자신이 그녀의 웃음에서 느꼈던 아픔에 대해 양갓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6) Lessing: Hamburgische Dramaturgie. In: Barner (Hg.): Gotthold Ephraim Lessing, Bd. 6, S. 323: “Die Komödie will durch Lachen bessern; aber nicht eben durch Verlachen”.

7) Vgl. Peter Sloterdijk: Kritik der zynischen Vernunft. Bd. 1, Frankfurt/M. 1983, S. 48 f.

8) Vgl. Lessing: Hamburgische Dramaturgie, S. 322: “Aber lachen und verlachen ist sehr weit auseinander. Wir können über einen Menschen lachen, bei Gelegenheit seiner lachen, ohne ihn im geringsten zu verlachen.”

9) M, 80: “ein[...] abgedankte[r], an seiner Ehre gekränkte[r] Officier, ein[...] Kriepel, ein[...] Bettler”.

2. 웃음혐오증(Gelotophobie)

민나의 웃음이 이렇게 부작용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웃음이 일반 언어와는 달리 무수히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웃음의 동인이 워낙에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된 감정에서 연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음은 최소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기표만 있고 기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웃음은 주로 소통과정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오인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잘못 웃었다가 봉변을 당하는 더욱 황당한 예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에밀리 브론테의 『위더링 하이츠 Wuthering Heights』에서 발견된다. 『민나 폰 바른헬름』에서는 민나의 웃음이 텔하임을 자극했다고 할만한 이유가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유복한 린튼 가족의 집에 머물다가 드디어 다시 위더링 하이츠로 돌아온 캐시는 남자친구가 왜 그리 화를 내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다. 그녀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단짝 히스클리프에게 달려가 깔깔거리며 놀러뒀을 따름인데,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 shame”과 상처받은 “자존심 pride”¹⁰⁾뿐이다.

“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건 견딜 수 없다구!” [/]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캐시 아가씨가 다시 그를 붙잡았지요. [/] “널 비웃으려고 했던 게 아냐. 그냥 웃음이 나왔어. 적어도 악수는 하자, 히스클리프! 무엇 때문에 심통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상하게 보여서 그랬을 뿐이야. 세수를 하고 빗질을 하면 팬츠를 텐데. [...]”

“I shall not stand to be laughed at, I shall not bear it!” [/] And

10)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In: David Daiches (ed.):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New York 1965, S. 94 (에밀리 브론테 (유명숙 역): 위더링 하이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he would have broken from the circle, but Miss Cathy seized him again. [I] “I did not mean to laugh at you,” she said, “I could not hinder myself. Heathcliff, shake hands, at least! What are you sulky for? It was only that you looked odd - If you wash your face, and brush your hair it will be all right. [...]”¹¹⁾

앞으로 끊임없이 어긋나게 될 캐시와 히스클리프의 관계를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는 이 장면에서 히스클리프가 캐시의 무해한 웃음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젊은 집주인이자 캐시의 오빠인 힌들리에게 얹혀 살며 종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업동이라서 특별히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웃음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실패할 가능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특정한 방향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아무리 가벼운 미소가 소통관계를 여는 호감의 표시로 즐겨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웃음이 대부분 불쾌하게 느껴지며 그 반대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은 일상에서도 흔히 겪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자신이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웃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우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카네티 Elias Canetti의 어떻게 보면 기괴할 수도 있는 ‘웃음의 인류학’은 그러한 현상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웃을 때 입이 크게 벌어지고 이가 보이는 까닭에 웃음은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웃음은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노획물과 음식에 대한 희열감을 그 근원에 내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노리고 있다가 손수 쓰러뜨렸던 동물을 연상시킨다. 웃음을 유발하는 모든 쓰러지는 모습은 쓰러지는 것의 무력함을 생각나게 만든다. 원하기만 하면 그 쓰러진 것을 노획물처럼 다룰 수도 있을 터이다. 만약 위에 묘사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서 그것을 정

11) Brontë: *Wuthering Heights*, S. 95.

말로 섭취한다면 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대신 웃는 것이다. [...] 오직 인간만이 섭취의 전체 단계를 상징적인 행위로 대체하는 법을 배웠다.

Das Lachen ist als vulgär beanstandet worden, weil man dabei den Mund weit öffnet und die Zähne entblößt. Gewiß enthält das Lachen in seinem Ursprung die Freude an einer Beute oder Speise, die einem als sicher erscheint. Ein Mensch, der fällt, erinnert an ein Tier, auf das man aus war und das man selber zu Fall gebracht hat. Jeder Sturz, der Lachen erregt, erinnert an die Hilflosigkeit des Gestürzten; man könnte es, wenn man wollte, als Beute behandeln. Man würde nicht lachen, wenn man in der Reihe der geschilderten Vorgänge weitergehen und sich's wirklich einverleiben würde. Man lacht, anstatt es zu essen. [...] Der Mensch allein hat es gelernt, den vollkommenen Prozeß der Einverleibung durch einen symbolischen Akt zu ersetzen.¹²⁾

웃음의 근원적인 동인은 살아남은 자가 쓰러져 있는 먹이 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우월감 Überlegenheitsgefühl이다. 웃음의 대상의 입장에서 뒤집어보자면, 웃음이란 누군가가 나를 자신의 '밥'이라 여기며 우월감을 선언하는 공격적인 행위이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은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발견, 폭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열등한' 웃음의 대상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강요한다.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조소나 비웃음을 산 사람으로서 '대상화된다'. 그는 자신을 보고 웃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동체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자신이 치욕스럽게도 무력하다는 것을 세상이 보는 앞에서 폭로당한다. 여기에서 종종 수치심에 대한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웃음혐오증'이라 부른다.

12) Elias Canetti: Masse und Macht, Frankfurt/M. 1995, S. 237 (엘리아스 카네티(강두식 역): 군중과 권력, 학원사 1982).

Als Belächelter oder Verlachter wird der komische Mensch 'objektiviert'. Er ist aus der sozialen Gemeinschaft der über ihn Lachenden ausgeschlossen und gleichzeitig vor den Augen der Welt in seiner beschämenden Ohnmacht decouvriert. Hier setzt häufig der circulus vitiosus einer Schamangst ein, die wir als 'Gelotophobie' bezeichnen.¹³⁾

이러한 악순환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 메커니즘이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¹⁴⁾에 해당하는 ‘수치심 Scham’과 맞물려 있다는 데에 있다.¹⁵⁾ 수치심은 사실이나 행동과 연관되는 ‘죄책감 Schuldgefühl’과는 달리 자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위기상황의 표현이다.¹⁶⁾ 죄책감에서는 자아가 그 주체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자아 외부에 있는 반면에, 수치심의 경우에는 자아가 곧 대상이 됨으로써 자아-대상의 폐쇄된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¹⁷⁾ 즉, 죄책감은 자아의 ‘일부’ 능력이 실패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특정한 잘못이나 실수를 교정, 보상, 원상복

13) Michael Titze: Das Komische als schamauslösende Bedingung. In: Rolf Kühn/ Michael Raub/ Michael Titze (Hg.): Scham - Ein menschliches Gefühl, Opladen 1997, S. 169.

14) Michael Lewis: Scham. Annäherung an ein Tabu, Hamburg 1993, S. 107: “ein[...] globale[r] Angriff auf das Selbst”.

15) 레싱의 웃음이론은 바로 이점에서 텔하임이나 민나의 행동방식과 차이가 난다. 웃음의 대상이 반드시 교정 가능한 것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어떤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이 그 사람 전체에 대한 경멸이 아님을 레싱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Vgl. Lessing: Hamburgische Dramaturgie, S. 322 f.: “wo steht es geschrieben, daß wir in der Komödie nur über moralische Fehlern, nur über verbesserliche Untugenden lachen sollen? Jede Ungereimtheit, jeder Kontrast von Mangel und Realität, ist lächerlich. [...] Der Zerstreute gleichfalls: wir lachen über ihn, aber verachten wir ihn darum? Wir schätzen seine übrige guten Eigenschaften”.

16) Vgl. Titze: Die heilende Kraft des Lachens. Mit Therapeutischem Humor frühe Beschämungen heilen, München 1995, S. 69 f.

17) Vgl. Lewis: Scham, S. 53.

구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반면에, 수치심은 자아 ‘전체’가 실패의 원인이므로 자아에 대한 평가절하를 만회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보다는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위장하는 데에 자아의 관심이 집중된다.¹⁸⁾ 수치심을 강요당한 비웃음의 대상은 앞으로 이렇게 창피한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이 다시 웃음의 대상을 점점 더 어색하고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는 다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만다. 이렇게 악순환되는 신체적, 심리적 경직성 때문에 이 이상심리 현상은 ‘피노키오 콤플렉스 Pinocchio-Komplex’라고도 불린다.¹⁹⁾

이러한 웃음혐오증(즉,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심층적인 실존적 붕괴가 일어난다. 웃음은 더 이상 유쾌한 삶의 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잔혹한 “사회적 길들이기의 수단”(베르그송)으로서 체험된다. 여기에서부터 종종 옥죄이는 기분으로 “생동적인 삶”(도스토예프스키)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겨난다. 해당자들은 마음이 안 좋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으며 “마치 적국에 서처럼”(아들러)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신체가 경직되는 것은 그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동시에 섬뜩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종종 순전히 불안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불안감은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조소하듯 비죽이는 웃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In der Gelotophobie (d. I. Angst vor dem Ausgelachtwerden) wirkt sich ein tiefgreifender existentieller Bruch aus: Das Lachen wird nicht mehr als Ausdruck fröhlicher Lebenslust, sondern als grausames ‘soziales Zuchtmittel’ (Bergson) erlebt. Daraus leitet

18) Wolfgang Blankenburg: Zur Differenzierung zwischen Scham und Schuld. In: Kühn/ Raub/ Titze (Hg.): Scham, S. 52.

19) Vgl. Titze: Die heilende Kraft des Lachens, S. 20 ff.

sich häufig eine beklemmende Entfremdung vom 'lebendigen Leben' (Dostojewski) ab. Die Betroffenen fühlen sich unwohl. Sie spüren, daß sie nicht dazugehören und daß sie 'wie in Feindesland' (Adler) leben. Sie erleben sich nicht als Menschen aus Fleisch und Blut. Die Verkrampfung ihres Körpers läßt sie hölzern erscheinen. Und so sind sie den anderen fremd und unheimlich zugleich. Oft ist es pure Unsicherheit, die dann zu jenem spöttischen Grinsen führt, das ein komischer Mensch so fürchtet!²⁰⁾

3. '암흑의 교육학 Schwarze Pädagogik'

『민나 폰 바른헬름』에서 민나의 웃음이 그녀가 주장하는 바와 어긋나게 작용하는 데에서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레싱의 희극론과 민나의 계몽적 의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민나의 예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텔하임이 직접 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희극공연에서는 관객이 제3자가 되어 웃으며 배울 수 있도록 무대 위의 누군가가 대신 웃음의 '희생양'이 되어준다.²¹⁾ 텔하임의 자포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과장된 자기인식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민나의 빠있는 농담은 관객에게는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당사자인 텔하임은 그것에서 "말괄량의 방자한 말밖에는"²²⁾ 듣지 못한다. 웃음이 그 대상에게 공격성의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20) Titze: Die heilende Kraft des Lachens, S. 24.

21) 프로이트는 위트와 연관하여 이와 유사한 모델을 설정한다. Vgl. Sigmund Freud: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ssten. In: Alexander Mitscherlich/ Angela Richards/ James Strachey (Hg.): Sigmund Freud. Studienausgabe, Bd. IV, Frankfurt/M. 1970, S. 139 f.

22) M, 81: Jetzt höre ich "nur das mutwillige Mädchen".

발견이 가능한 ‘웃는 제3자’의 모델에서와는 달리 일대일의 모델에서는 심리에너지의 흐름이 고려에 넣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결과가 수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낳고 축적해왔다는 사실이다. 서구의 웃음이론은 희극이론들이 특정한 작동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이것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웃음의 주체와 원인에 대한 연구로 편향되었으며, 웃음이 소통 수단이라는 것, 따라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대상에게서도 소통의 영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해왔다. 이로써 웃음의 인식축진적 계기는 지나치게 부각되는 반면에 웃음의 대상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시되거나 심지어 왜곡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웃음이론가로 손꼽히는 베르그송의 연구기반이 프랑스 고전희극이며, 그가 웃음을 인식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웃음은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항상 조금은 굴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사회적 길들이기라 볼 수 있다”²³⁾며 웃음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교육적인 기능으로서 긍정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대상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끈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의 용어를 빌리면 ‘수치심-우울증-축 Scham-Depression-Achse’이 작동하고 있다.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제기이므로 자아로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해소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대부분 다른 감정상태로 전이되는데, 루이스는 수치심

23) Henri Bergson: Das Lachen. Ein Essay über die Bedeutung des Komischen, Frakkfurt/M. 1988, S. 90: “Da nun das Lachen für den, dem es gilt, immer ein wenig demütigend ist, kann man es als eine wahre soziale Züchtigung betrachten”. 베르그송이 웃음을 ‘교정의 수단’이자 ‘처벌’로 긍정하는 것을 클라우스 하인리히는 ‘파시즘 전(前)단계적 präfaschistisch’이라 비판한다. Vgl. Klaus Heinrich: “Theorie” des Lachens. In: Dietmar Kamper/ Christoph Wulf (Hg.): Lachen - Gelächter - Lächeln, Frankfurt/M. 1986, S. 27.

자극이 지속되어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자아에게 향해졌던 공격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는가에 따라 이것을 크게 ‘수치심-우울증-축’과 ‘수치심-울화증-축 Scham-Wut-Achse’으로 나눈다.²⁴⁾ 수치심은 공격성이 여전히 자아에게로 향할 경우에는 ‘슬픔 Trauer’으로, 밖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분노 Zorn’의 형태로 나타난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길들이기”는 공격받은 자아로 하여금 공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주어진 “처벌 Strafe”²⁵⁾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므로 ‘수치심-우울증-축’ 상에 놓인다. 그와 반대로 민나의 놀림거리가 된 것에 발끈해서 심지어 그녀와 같은 방법(웃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는 텔하임이나, 캐시의 웃음에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는 히스클리프는 ‘수치심-울화증-축’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물론 민나와 캐시 모두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감정의 전이를 교육적 효과와 연관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리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헨들리에게 놀림과 핍박을 당하던 히스클리프가 결국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연소 집안을 몰락시키는 것은 굴욕감이 한 인간의 심성을 얼마나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수치심’을 매개로 하는 교육방식이 이렇듯 매우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데에는 매우 ‘현실적인’ 논거가 뿌리내리고 있다. 삶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이므로 “영혼의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한 단련”²⁶⁾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력 아래 발전해온

24) Vgl. Lewis: Scham, S. 186 ff.

25) Bergson: Das Lachen, S. 23.

26) G. Vieth: Was man von den Wilden lernen kann. In: Katharina Rutschky (Hg.): Schwarze Pädagogik. Quellen zur Naturgeschichte der bürgerlichen Erziehung, Neuausg., Berlin 1997, S. 266: “die Abhärtung gegen schmerzhaft empfundene Empfindungen der Seele”.

계몽적인 교육이론들이 발 딛고 있는 불합리한 토대를 드러내어
서 기존의 교육방식에 충격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카타리나
루취키 Katharina Rutschky는 『암흑의 교육학』(1977)에서 이것
을 ‘위기상황 훈련 Katastrophentraining’이라 부른다.²⁷⁾ 이것 역
시 다른 시민적 교육방식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추
구한 결과임은 “예방접종 Impfung”²⁸⁾이라는 ‘과학적인’ 용어가
그 작동방식을 직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
다.

그것[예방접종]은 교육자가 아이를 대신해서 두려워 해주는 모든 위
기상황들과 운명의 타격들을 조제량에 맞게 선취해야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면역시켜야 한다. 미지의, 하지만 위협적인 미래에
대비해 훈련시키고자 하는 교육은 자의적이며 금욕적이다. [...] 필연
적으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훈련은 교육자에게 자신의 과대망상
증을 발산할 - 그가 “운명”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 많은 가능성들
을 제공한다.

Sie soll alle Katastrophen und Schicksalsschläge, die der Erzieher
für das Kind fürchtet, dosiert vorwegnehmen und es auf diese
Weise immunisieren. Eine Erziehung, die für eine unbekannte,
aber drohende Zukunft trainieren will, ist willkürlich und
asketisch. [...] Das notwendig willkürliche Training bietet dem
Erzieher viele Möglichkeiten, seinen Größenwahn - er spielt ja
‘Schicksal’ - auszuagieren²⁹⁾.

민나가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꺾어놓으려는 계획이나 히스클
리프의 비참한 성장 과정에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잠재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 텔하임이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해 말긴

27)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학적 예와 그에 대한 분석은 이준서: “Ich
lache über fremde Qual”. ‘Lachen’ in Texten Heiner Müllers,
Diss., Berlin 1999, S. 18 ff.

28) Rutschky (Hg.): Schwarze Pädagogik, S. 248.

29) Rutschky (Hg.): Schwarze Pädagogik, S. 248.

반지를 가지고 민나가 ‘연극’을 한다거나 그의 편지를 읽고도 안 읽은 척하면서 “괴롭히고 quälen”(M, 107) “약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 ein wenig zu martern”(M, 68)은 그런 것쯤은 앞으로 자신의 ‘교육’을 통해 얻어질 것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신의 교육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녀의 웃음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듯이 그녀가 그를 반지로 끌려주려던 것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따름이다. 그녀의 ‘계략’이 그나마 이 희극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텔하임이 그녀가 고향에서 쫓겨난 비참한 처지라는 거짓말에 속아 그녀에게 “동정심 Mitleid”(M, 95)을 품게 된 것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같은 방식을 고집하며 끝까지 ‘연출자’의 역할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희극)배우로 전락하는 zur Komödiantin verdorben”(M, 107)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³⁰⁾

물론 그녀가 텔하임을 약올리는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텔하임 자신보다 그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품의 결말 역시 ‘해피엔드’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그녀에게 자신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주도해나갈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일까? 자칭 “이성의 대단한 애호가 eine große Liebhaberin von Vernunft”(M, 45)인 그녀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인간을 그렇게 일부러 “쌀쌀맞고 비웃듯이 kalt und höhnisch”(M, 95) 대할 자격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어떻게 자신의 ‘교육방침’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30) Siehe hierzu Rutschky (Hg.): Schwarze Pädagogik, S. LII ff.

■ 참고문헌

- Blankenburg, Wolfgang: Zur Differenzierung zwischen Scham und Schuld. In: Rolf Kühn/ Michael Raub/ Michael Titze (Hg.): Scham - Ein menschliches Gefühl, Opladen 1997.
- Bergson, Henri: Das Lachen. Ein Essay über die Bedeutung des Komischen, Frakkfurt/M. 1988.
- Brontë, Emily: Wuthering Heights. In: David Daiches (ed.): Emily Brontë. Wuthering Heights, New York 1965 (에밀리 브론테(유명숙 역): 워더링 하이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Canetti, Elias: Masse und Macht, Frankfurt/M. 1995 (엘리아스 카네티(강두식 역): 군중과 권력, 학원사 1982).
- Freud, Sigmund: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ssten. In: Alexander Mitscherlich/ Angela Richards/ James Strachey (Hg.): Sigmund Freud. Studienausgabe, Bd. IV, Frankfurt/M. 1970.
- Heinrich, Klaus: "Theorie" des Lachens. In: Dietmar Kamper/ Christoph Wulf (Hg.): Lachen - Gelächter - Lächeln, Frankfurt/M. 1986
- Lessing, Gotthold Ephraim: Minna von Barnhelm, oder das Soldatenglück. In: Wilfried Barner (Hg.): Gotthold Ephraim Lessing. Werke und Briefe, Bd. 6, Frankfurt/M. 1985 (레싱(윤도중 역): 필로타스, 민나 폰 바른헬름,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1).
- Ders.: Hamburgische Dramaturgie. In: Barner (Hg.): Gotthold Ephraim Lessing, Bd. 6.

- Lewis, Michael: Scham. Annäherung an ein Tabu, Hamburg 1993.
- Rutschky, Katharina (Hg.): Schwarze Pädagogik. Quellen zur Naturgeschichte der bürgerlichen Erziehung, Neuausg., Berlin 1997
- Sloterdijk, Peter: Kritik der zynischen Vernunft. Bd. 1, Frankfurt/M. 1983.
- Titze, Michael: Das Komische als schamauslösende Bedingung. In: Kühn/ Raub/ Titze (Hg.): Scham.
- Ders.: Die heilende Kraft des Lachens. Mit Therapeutischem Humor frühe Beschämungen heilen, München 1995.
- Vieth, G.: Was man von den Wilden lernen kann. In: Rutschky (Hg.): Schwarze Pädagogik.
- 이준서: "Ich lache über fremde Qual". 'Lachen' in Texten Heiner Müllers, Diss., Berlin 1999

Zusammenfassung

**Dynamik zwischen Lachen und Scham am
Beispiel vo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und Emily Brontës *Wuthering Heights***

Joon Suh Lee (Seoul National Univ.)

Die vernünftige Heldin Minna i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plädiert für das Lachen. Es ermögliche, ein richtiges Urteil zu treffen. Ihre Einsicht entspricht nicht nur der Komödienauffassung des Autors Lessing, sondern auch dem Grundgedanken der europäischen Komödienkonzeption schlechthin, welche eine aufklärerische Absicht im Sinn hat. Sie basiert auf dem Glauben, daß das Entdecken und die Kritik der Fehler für alle Teilnehmer — vom Entdecker bis zum Kritisierten — ein Gewinn darstellt.

Im Gegensatz zu der gewünschten Wirkung provoziert die erzieherische Absicht Minnas ihren Verlobten Tellheim und macht ihn dadurch noch unvernünftiger. Das Objekt des Lachens fühlt sich provoziert und revanchiert sich dafür mit einem "schrecklichen Lachen des Menschenhasses". Ein Grund für diese gegenläufige Wirkung besteht darin, daß das Lachen sehr viele Motive haben kann, so daß es meistens aus dem Kontext des Kommunikationsprozesses gedeutet werden muß und daher leicht mißverstanden werden kann. Es ist auch zu beobachten, daß das Lachen, dessen Motiv unklar ist, eher

unangenehm wirkt. An das Wesen dieses Phänomens rührt Canettis anthropologische Erklärung, das Lachen sei eine symbolische Substitution der Einverleibung der gestürzten Beute. Gerade auf dem Überlegenheitsgefühl des Lachenden, das der Verlachte als eigene Inferiorität erfährt, beruht Gelotophobie, d. i. die Angst vor dem Ausgelachtwerden.

Der zweite Grund der gegenläufige Wirkung rührt daher, daß Lessings Komödientheorie und Minnas pädagogische Intention völlig andere Verfahrensweisen haben. Während Tellheim selbst zum Gegenstand des Lachens werden muß, um sein Problem zu erkennen, wird jemand in der Komödie zum Opfer des Lachens, damit der Zuschauer lachend lernt. Für den Zuschauer sind Minnas Scherze mehr als plausibel, der Betroffene Tellheim hört jedoch "nur das mitwillige Mädchen". Anders als im Modell des lachenden Dritten soll in der unmittelbaren Lachkommunikation der Energiehaushalt der Aggression miteinbezogen werden. Die europäischen Lachtheorien sind im gewissen Sinne ein Produkt der Mißachtung dieses Unterschieds. Das erkenntnisfördernde Moment des Lachens ist allzu sehr hervorgehoben, während die 'Nebenwirkungen' beim Lachobjekt übersehen oder gar aufgewertet werden. Symptomatisch ist es, daß einer der berühmtesten Lachtheoretiker, nämlich Bergson, seine Theorie auf die klassischen französischen Komödien gründet und das Lachen im Hinblick auf Erkenntnis auffaßt und behauptet: "Da nun das Lachen für den, dem es gilt, immer ein wenig demütigend ist, kann man es als eine wahre soziale Züchtigung betrachten."

Das pädagogische Programm, das den Verlachten durch Beschämung auf den 'richtigen' Weg bringen will, setzt die

Aktivierung der 'Scham-Depression-Achse' (Michael Lewis) voraus. Bei Tellheim und Heathcliff (*Wuthering Heights*) wird jedoch die 'Scham-Wut-Achse' aktiviert. Der Grund, warum diese Pädagogik trotz vieler Probleme weiterhin angewendet wird, liegt an einem 'realitätsnahen' Argument: Da das Leben ohnehin voll von Leiden ist, ist "die Abhärtung gegen schmerzhaft empfundene Empfindungen der Seele" unausweichlich. Solche "Schwarze Pädagogik" nennt Katharina Rutschky "Katastrophenstraining", deren Funktionsmechanismus sich mit der medizinischen Vokabel "Impfung" veranschaulichen läßt.

In Minnas erzieherischem Plan und Heathcliffs Lebenslauf ist dieses Training bereits angelegt. Die Voraussetzung für Minnas "Necken", "Quälen" und "Martern" ist die Kalkulation, daß der jetzige Schmerz im Vergleich mit dem zukünftigen Gewinn nicht der Rede wert ist. Die Handlung des Stücks zeigt allerdings deutlich, daß die selbsternannte "große Liebhaberin von Vernunft" nicht imstande ist, die Folgen ihrer Handlungsweise vorzuberechnen. Aus welchem Grund jedoch denkt sie, daß sie sich anderen Menschen "kalt und höhnisch" stellen darf, ja, wie kann sie ihre Pädagogik überhaupt rechtfertigen?